

# 한달 1천원으로 부처님 가르침 전하세요



## “대행 스님 등 선지식 법문 큰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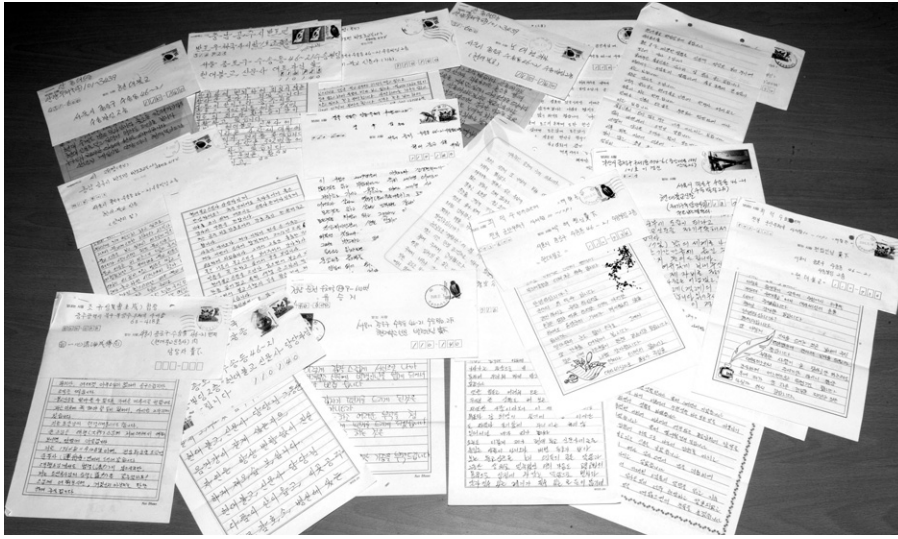
9년째 매달 5만원씩 법보시한 김강산 씨

김강산(42·사진) 씨는 2003년부터 9년째 매달 5만원씩 법보시를 해오고 있다. 대행 스님의 ‘길을 묻는이에게’ 코너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생각에서다.

김 씨는 “‘길을 묻는이에게’와 큰스님들의 법문을 담은 ‘선지식을 찾아서’가 많은 도움이 됐다. 행편이 어렵든 어렵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 고민이 있는데 대행 스님의 법문은 각자의 처지에 맞는 삶의 해답을 제시해 준다”며 “특히 재소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법보시를 꾸준히 해왔다”고 말했다.

안양 한마음선원을 10년째 다니며 마음공부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김강산 씨는 “여러분도 항상 법문을 가까이 하면서 지인들에게 법문을 권할 수 있는 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법보시를 통해 현대불교신문을 받아본 재소자들이 본사로 보내온 감사 편지들. 이들에게는 현대불교신문이 삶의 희망이 되어주고 있다.

## 교도소·군법당·병원 등 1246곳 전달

“현대불교 통해 불교수행의 길 찾은 것이 큰 행복”

“모든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보성 스님의 글을 읽으면서 가슴 아픈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비록 늦게 알아차린 잘못이지만 이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아야겠다고 다짐 했습니다. 하지만 인원에 비해 현대불교신문 수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대불교 신문은 편하게 매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박○○씨 (대구교도소)

“제가 이번에 심사에 합격해서 퇴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훌륭한 기사와 좋은 내용의 현대불교신문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서 글을 보냅니다. 현대불교신문을 2년간 읽으면서 불교의 지식이 한층 깊어졌고 특히 대행 스님의 ‘길을 묻는이에게’를 읽으면서 불교수행의 길을 찾은 것이 제겐 큰 행복이

있습니다. 2년동안 신문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꼭 나가서 새사람이 되어 불자로서 열심히 살아하겠습니다.” 조○○씨 (충남 공주치료감호소)

“신문에 게재된 스님들의 말씀을 읽고 제가 살아온 것이 너무 허망하고 잘못됐다 는 것을 깨닫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습니다. 어려운 부탁이지만 저에게 희망을 안겨준 현대불교신문을 꼭 보내주세요.” 임○○ 씨 (여주교도소)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님, 신문 1부만 부쳐주세요. 병실 동료 불자와 3명이 함께 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셋서 돌려읽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다른 동료들도 같이 볼 수 있게 꼭 1부 더 부탁드립니다.” 조○○씨 (충남 공주치료감호소)

“불교로 개종해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자 합니다. 출소할 때까지 만이라도 현대불교신문을 보고 싶어 어렵게 편지를 보냅니다. 신문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씨 (안양교도소)

## 1구좌 1천원으로 자비와 지혜의 법등 밝히세요

‘현대불교’는 소외된 이웃과 우리 사회를 지켜가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고자 군부대, 교도소, 양로원, 고아원, 병원 및 사회복지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해 불국토를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637명의 법보시 후원자가 동참해 매주 1246부의 신문이 군장병·교도소 수형자·경찰 병원 등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10여 만 여부의 신문이 포교사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보시는 일시적이지만 법보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무한한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금강경)에서 이르기를 “사구해 하나라도 남에게 일러주는 공덕이 삼천大千 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의 칠보로써 보시한 공덕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 **법보시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 **참여방법:** 자동이체는 관리부로 전화신청하시고, 온라인 입금은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입금 후 전화주세요.)
- **법보시 동참 계좌번호(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038-25-0008-365
- **법보시 동참 문의 및 안내:** 현대불교신문사 관리부  
전화: (02)2004-8200(대표) (02)2004-8212(직통) / 팩스: (02)737-0697

## ■ 법보시 발송처

구분	발송처	발송부수	구분	발송처	발송부수
경찰	경철서	168	복지단체	복지편련대학	30
	감별소	3		복지단체	46
	교도소	296		복지협의회	4
교회기관	교정청	3		부랑인복지	3
	구치소, 감호소	77		이동복지	23
군부대	소년원	30	지역복지	71	
	군법당	399	장애인복지	10	
병원	군법원	10	청소년복지	20	
	법당	13	청소년복지	10	
복지단체	기업복지재단	6	합계	20건	1246
	노인복지	24			

## 현대불교 법보시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강덕순 강명옥 강명자 강미지 강민정 강수옥 강순희 강영내 강은심 강춘계 강향진 경연혜 고경옥 고은영 고준영 고필선 공병길 공병근 광평순 관순정 관은아 관축자 권경순 권두상 권미경 권익중 권정화(2) 권효심 김강산 김강웅 김경숙 김경희 김광환 김교도 김규순 김규연 김근숙(김무진행) 김기석 김기성 김기흥 김나령 김나영 김남규 김남오 김다정 김덕순 김명란 김명숙 김명옥 김무재 김문은 김미래 김미리 김미원 김민지 김방옥 김병희 김봉란 김비연 김상분 김선아 김선영 김선옥 김선자 김성수 김성희(2) 김수옥 김숙자 김숙희 김순남 김순복 김순분 김순희 김승재 김승훈 김승훈 김신숙 김연수 김영선 김영성 김영식 김영애 김영애 김영옥 김영임 김영자 김영팔 김옥선 김옥수 김용만 김용순 김용호 김윤경 김윤관 김윤성 김윤자 김의식 김인순 김인태 김장원 김재방 김재철 김재희 김정규 김정단 김정덕 김정렬 김정석 김정아 김정애 김정현 김정혁 김정환 김정희 김종미 김종영 김주익 김준 김중철 김지숙 김지영 김진금 김진영 김채란 김철수 김철중 김춘희 김태수 김태영 김태운 김학수 김학표 김향숙 김현국 김현신 김현진 김현화 김화일 김효상 김효찬 김희주 김희진 나귀례 나민자 남선자 남정현 남주희 노덕현 노성일 노성희 노승현 노실호 노영애 노슬문화 단영숙 대일스님 대지행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도순련 도이환 류지연 류진주 류해장 무원스님 문경숙 문수홍 문수희 문영희 문임숙 문점숙 문정희 문경애 민미자 민정원 박건용 박경옥 박경수 박경순 박경

한 박경희 박공임 박귀자 박기숙 박기임 박남순 박말야 박맹순 박명란 박무주행 박미자 박봉근 박봉순 박봉영 박상섭 박상현 박성준 박수경 박숙자 박숙희 박순애 박순자 박순희 박승목 박연신 박영숙(2) 박영준 박영준 박옥경 박옥남 박원희 박은미 박은주 박인서 박정미 박재석 박재완 박정호 박정부 박정숙 박정자 박정희 박종미 박종희 박주호 박준용 박지연 박진우 박 찬 박철홍 박준미 박준봉 박태수 박한기 박향옥 박현동 박현주(2) 박형숙 박형재 박혜경 박혜리 박혜선 박화재 방명국 방명섭 방수자 방정수 방재순 배광자 배민희 배영숙 배정일 백경훈 백규현 백영규 백인창 백지은 백훈규 범공스님 변영희 변용태 상현스님 서미옥 서영호 서예숙 서의숙 서정우 서정자 서준건 서호준 석영수 석우스님 선덕스님 설정수 성민자 성불사주지스님 성진스님 소총호 손문영 손문철 손종현 송동호 송연희 송용관 송은경 송정구 송종화 수선화 보살 신경희 신남선 신덕근 신상규 신선자 신수영 신수호 신영찬 신용례 신용순 신정우 신조현 신주호 신종일 신창순 신희순 심경우 심광화 심길현 심영애 심영자 심원식 심현보 안병태 안양본원보시함 안정은 안중희 안형준 양세옥 양순조 양연희 양영모 양영순 양영준 양흥용 엄경미 엄재옥 엄태영

경희 임미순 임성환 임연미 임연희 임옥빈 임영식 임재철 임재환 임정순 임종구 임춘희 임준준 임희석 장미숙 장미순 장미자 장성운 장성호 장영철 장재원 장현란 장혜선 장희숙 장계영 전명국 전미영 전병수 전소윤 전재호 정갑일 정경남 정구순 정규열 정광남 정길동 정동하 정명자 정미자 정영수 정영숙 정윤경 정은영 정인순 정인자 정재평 정재애 정창남 정하석 정학찬 정혜순 정혜숙 조계종교육원 조공옥 조대영 조민규 조성준 조재규 조정애 조정희 조진현 조창희 조현숙 조현정 주미숙 주정숙 주현순 지경애 지민정 지장사 진동석 진말련 진수명 진일스님 채은훈 천병필 천상봉 천수해보살 천영기 천지현신 청무스님 정일스님 최갑식 최미희 최복림 최복순 최봉태 최순옥 최순이 최영숙(2) 최원주 최윤희 최재순 최재원 최정기 최정의 최종열 최종원 최주범 최주선 최장숙 최태영 최태준 최현창 최희숙 최희순 탁순례 표경희 하미경 하미희 하재환 하정희 하태선 학필사 화정스님 한경규 한광호 한기영 한기준 한동원 한마음선원공주지원 한마음선원광주지원 한마음선원목포지원 한마음선원안양본원 한마음선원울산지원 한마음선원진주지원 한마음선원통영지원 한마음선원원포항지원 한세진 한승근 한승화 한영순 한윤진 한은섭 한인식 한재희 한창훈 한효정 허명범 허미옥 허복영 허수자 허주자 허태환 헬원스님 홍순 홍순혁 홍승태 홍애순 홍월자 화정스님 황정숙 황희영 황은철 황성기 황순희 황용숙 황인형 황태숙 황향숙 황희자

#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함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헨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2세트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헨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 **건포, 스펀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동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위생적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사위타올 (건포마사지)**  
\* 할애했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땀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지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행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헌불샵** |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화,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